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2월 19일(금)
(윤력 1월 8일)
Пятница
19 февраля 2021г.
№ 7 (1192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2월 23일은 러시아 조국 수호자의 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열병식 장면.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사할린주 새 법원장 부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령으로 지난 2월 15일 사할린주 법원장을 포함해 일련의 법관들이 임명됐는데 하바롭스크 출신의 세르게이 바라바노브가 사할린주 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사할린주 법원장 자리는 2019년 8월부터 공석이었다.

세르게이 바라바노브는 2008년 2월 연하바롭스크 변경 부법원장을 역임했다.

같은 대통령령으로 우글레고르스크시 법원장으로는 마리나 스타로두브체와가 임명되었다.

'2021-2025년 농산업 개발전망' 개최

2월20일 '2021-2025년 농산업 개발전망' 대규모 행사가 사할린에서 개최된다.

지역 전략 산업으로서 2020년부터 시작된 이 투자산업 기획이 개최하는 행사는 사할린 지역에 '농산물 도매 및 유통센터'가 있는 농산업 단지' 건설 공고의 일환으로 열리는 가운데 사할린주 개발공사가 주최한다.

2월23일은 조국 수호자의 날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조국 수호자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명절은 용맹과 정신력과 조국에 대한 충성이 구현된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양한 위협에 맞서 대처하며, 평화와 질서를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참전용사와 원로 분들은 조국에 헌신하는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전쟁 시기 여러분은 두려움을 떨치시고 전방과 후방에서 조국의 영토를 지켜주셨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이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도약을 성취하고 사할린에서 좀더 편안한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안전이 확보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때 가능합니다. 이 공공의 일에 국경 수호에서부터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조국 수호입니다. 각각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높은 고지를 정복하시고, 강건하시며, 모든 일이 다 잘 되길 기원합니다!

조국 수호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올해 350명이 한국 영주귀국 가능

귀국 신청은 올 6월 30일 마감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설명회
온라인으로 진행

지난 16일(화) 오후 4시(사할린 시간) 한국 외교부가 주최한 <2021년도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 설명회>가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한국 외교부를 비롯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적십자 등 관계 부처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 진행을 맡은 외교부 심은교 재외동포과장은 사할린동포 축을 한국 내 전국 사할린동포귀국동포연합회 대표 22명(여러 지역 회장),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로스토브-나-도누,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 14명, 총 36명의 동포가 참가했다고 전했다.

사할린 같은 경우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주 이산가족협회 박경춘 회장, 주한인여성회 김웨철 회장, 주한청년회 이 세르게이 회장, 주한인협회 오진하 위원과 새고려신문사 배 워도리아 사장이 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모여 화상 회의에 참가했다. 또한 회의실에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이 방문했다.

부처 관계자 설명을 앞두고 변철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의 인사가 있었다. 그는 «동포여러분께서 오래 고대하고 기다려주셨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면에 계속)

사할린주, 풍설로 인한 제설작업 계속

2월 16일과 17일, 사할린 전 지역이 강력한 풍설의 영향권 속에 정체되어 짙은 구름과 습설을 동반한 바람은 초속 30m, 국지적 태풍은 초속 35m였다.

차량 도로 제설작업에 254대의 트랙터와 455명의 제설작업자들이 나섰다.

풍설로 인해 눈이 적체되어 10개 지역 - 토마리 - 크라스노고르스크, 크라스노고르스크-크라스노폴리에, 아르센티예브카 - 일린스코예, 유즈노사할린스크 - 포레치예, 포레치예 - 포로나이스크, 웨스토츠크 - 오호츠크예, 오호츠크예 - 말코워, 오노리 - 노글리키, 위스호드 -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노글리키 - 오하 - 의 이동이 통제되었다.

시외버스 7개 노선의 운행이 중단됐고, 여객선 와니노-흠스크 노선 운항도 3일간 취소되었다. 2월17일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제설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지연된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었다. 사할린에 눈보라 시 49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피난처 10 곳에 마련, 124명을 위한 5개의 이동식 난방시설을 가동시켰다. 풍설 재난 지역인 포로나이스크, 브즈모리에, 일린스코예 구역들에서 2명의 아동을 포함한 18명이 이 시설을 이용했다.

풍설로 13개 지역이 정전되었고, 전기 변전소의 단전으로 7,637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전기 변전소에서 티몹스크, 돌린스크, 우글레고르스크의 14개 마을의 전력 복구에 힘썼다. 쿠릴시 지역에서는 눈태풍으로 지역 중심에 있는 학교 지붕이 뜯겨져 나가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할린주의 전 학교들이 이틀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고 유치원은 정규 운영했다.

2월 17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400대의 제설장비가 동원돼 밤에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눈의 양이 너무 많아 눈운반 차량들이 눈을 버리는 곳으로 가는 길에 차량이 밀려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주요 문제는 주택가에 있다.

제설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다자녀 가족 가장 김 스타니슬라브 토마리 한인회 회장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삶의 철칙

40초반의 김 스타니슬라브 오보모위츠 (1979년생. 부친 김오범)는 토마리 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이곳에 살고 있어서 이 지역에서는 잘 알려진 사람이다.

1979년에 스타니슬라브가 태어난 당시 토마리시 인구가 약 8000명이었는데, 202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토마리 인구는 3771명이다.

스타니슬라브의 모친은 일찍이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 당시 17세였던 스타니스랍군은 연해 주로 떠난 아버지와 함께 잠시 머물렀다. 토마리로 되돌아온 그는 군대 입대를 앞두고 한 달 만에 모든 졸업시험을 치르고 야간학교를 마쳤다. 그가 2년간 군대 복무를 끝내고 1999년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뿐인 누나가 시집을 가서 대륙으로 떠난 상태였다. 그리고 군대에 있는 동안 연해주에 살던 아버지와와의 연락도 끊겼다. 이제 혼자란 생각으로 쓸쓸했다고 한다.

그 당시 스타니슬라브에게는 어머니가 남겨둔 아파트와 아버지의 재산으로 다 함께 살았던 개인집이 있었다. 어렸을 때는 집에서 돼지, 토끼, 닭을 사육했었다. 가족을 키우던 생각을 떠올리며 다시 집 수리도 하고, 돼지를 비롯해 가족 몇 마리를 키워볼 마음으로 포로나이스크에 사는 큰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큰아버지의 도움 덕에 그는 가족 사육을 시작할 수 있었다. 1년 후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가 토마리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가족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이 지역에는 고철이 많아 고철을 수집해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운반해 팔았다. 일 능률을 올리기 위해 크레인 트럭을 구입해 운반하다가 화물 배달도 시작했다. 한때는 돈을 더 벌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 2년간 온갖 노무에 뛰어들기도 했었다. 이후 토마리에서 고철을 찾아 운반하는 일과 운송업을 계속해 주요 업이 되었다.

마침내 2009년 김 부자는 건물을 구입해 리모델링을 하여 상점(식품점, 가정용 생활용품)을 열어 그 당시 마켓 운영은 아버지가 담당했다. 그리고 스타니슬라브는 김덕범 큰아버지의 부탁으로 <토마리 메벨리>회사에서 생산담당 부사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포로나이스크에서 사업가로 잘 알려진 큰아버지가 목재 가공을 하

는 주식회사에 한때 큰 투자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사업이 기울고, 돈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생각으로 회사 운영에 나섰는데 약 3년간 버티다가 계속 적자가 이어지자 이 회사를 팔게 되었다. 그리하여 스타니슬라브는 마켓 운영에 직접 나섰고 아버지는 여관(호텔) 운영을 하게 되었다. 이 여관 내에는 연회장도 있었다.

스타니슬라브는 마켓 운영을 위해 개인기업인으로도 등록되어 있고 <위스토크>유한회사 대표이사직도 맡아 일하고 있다. 그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가족 때문이다

26살에 스타니슬라브는 8살 아래 운명의 여인을 만나 슬하에 자녀 다섯을 두었다. 첫 딸은 2005년생 16세이고, 둘째 딸은 2007년생, 셋째 딸은 2013년이다. 2017년 12월에는 쌍둥이 아들 둘이 태어났다. 식구가 커지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 사실 힘들다고 스타니슬라브 씨가 고백했다. 내외가 상점을 운영하면서 번갈아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 힘들다고 하면서도 아이들만큼 삶에 큰 기쁨을 안겨주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김 스타니슬라브는 첫째 아이는 학교에서도 최우등생이고, 둘째가 우등생이며 이제 초등 1학년생인 셋째도 잘 따라간다고 자녀들을 자랑을 한다.

아내와 결혼한 지 벌써 17년째이지만 혼인식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혼잔치를 해야겠다고는 했는데 처음엔 너무 바빠서 못 했고 몇 년 전에 할 계획이었는데 쌍둥이를 가져서 또 미루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쌍둥이가 조금 큰 다음 할 생각이라고 한다.

아내 알렉산드라는 러시아인인데 한민족 전통을 잘 알고 있고 한식도 잘 한다고 한다. 스타니슬라브도 요리 솜씨가 만만치 않다.

어렸을 때 그의 가족은 친할머니와 한 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스타니슬라브는 한국말을 조금씩 알아들었고, 옛날부터 내려온 민족 전통과 풍습을 지켜왔다. 그리고 할머니가 해주신 한민족 요리의 맛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다며 이 맛을 떠올려서 혼자 살 때 요리에 도전을 많이 하기도 했다고 한다. 내외가 하는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가끔 단체 주문이 들어올 때 아내와 함께 만든다고 한다. 그는 특히 샐러드와 반찬을 담당한다.

스타니슬라브의 모친 제사는 처음엔 외삼촌이 모셨다고 한다. 군대를 제대하고 스무살 때부터는 자신이 직접 어머니의 제사를 챙기고 있다고 했다. 새해에도 인사를 올리고, 8월 15일(사할린 추석)에도 꼭 산소를 찾아간다. 몇 년 전에는 양력 말고 음력설에 차례를 지내기로 해서 어머니에게 그때 오시라고 했다고 한다. 스타니슬라브 씨의 자녀들도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민족 전통을 익히고 있다. 이번 설에 2월 12일 막내 쌍둥이도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절하는 법을 익혀 올려 보았다고 한다. 아내도 한민족 전통을 존중하고 따르고 있다고 했다.

스타니슬라브는 앞날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면서 공부도 하고 있다. 그는 원격으로 모스크바 인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6년 전에는 토마리 한인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오랫동안 한인회 회장을 맡았던 조현달 씨가 총회에 모인 지역 한인들에게 나이가 많으니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토마리 향토박물관 조명원 관장의 적극 추천과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스타니슬라브를 회장으로 뽑았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편이라 그는 이 활동도 잘 이끌어가고 있다. 음력설 행사, 광복절 행사, 자원봉사 등.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는 광복절에 치르는 야외 행사다. 그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사할린 중심도시에서 180 km 이상 떨어져 있는 토마리 광복절 행사에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한



국 아티스트들이 자주 찾아오게 되었다. 그 행사 때는 스타니슬라브 내외가 300 인분의 냉국수와 7가지 반찬을 직접 만들고 행사 찾아온 분들에게 나누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혼혈아를 포함해 토마리 구역에는 약 250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한인1세가 17명이다. 한인회 측에서 1세를 잘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 스타니슬라브 회장은 도시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은 분으로서 토마리시 사회위원회 위원으로도 임명되었다. 토마리시 사회문제 해결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개인기업인으로 잘 알려져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 돕기도 하고, 운동 선수들도 지원하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돕고 있다.

스타니슬라브는 사람에게 진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목적을 세우고 성취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꼭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삶의 주된 철칙이다. 가정 또한 마찬가지다.

스타니슬라브의 취미로는 여유가 생기면 자연 속에서 낚시를 즐기는 편이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와 있을 때는 꼭 외식을 한다고 한다.

남자답게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지며,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돌려주며, 사회활동도 활발하고 나서는 남자로서 멋진 삶을 자신에게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펼쳐주길 기대한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연인들 커플 크로스컨트리에 참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트리움프' 바이애슬론 스키 단지에서 특별한 경기가 조성되었다. 청년들이 에너지를 충전하고 연인과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릴레이 스키 경주에 참가했다. 2인 릴레이 경주 종목에 30쌍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 여성들이 먼저 출발해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남성 파트너에게 바통을 전달해야 했다.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한 남성이 우승자가 된다.

"스포츠 활동은 삶의 에너지와 건강과 긍정적 정신을 충전시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자신의 반쪽과 공감대를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짝을 이루는 운동으로서 파트너의 새로운 면을 알게 하고, 새로운 공동의 관심사를 찾도록 돕습니다."라고 사할린 스포츠부의 홍보부가 전했다. 경주 결과 인나 갈킨과 드미트리 트루빈이 우승했고, 엘리자베타 로파니와 아르쎘 콜렌코가 2위, 엘미라 마블라노와 야로슬라브 메셰라코브가 3위를 차지했다. 경기 상위 우승자들에게 우승컵과 메달, 부상을 수여했다.

влюбленные южносахалинцы устроили парный забег на лыжа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ля влюбленных 14 февраля устроили необыч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на лыже-биатлонном комплексе «Триумф». Молодые люди участвовали во встречной эстафете на беговых лыжах, чтобы

зарядиться энергией и укрепить свои отношения.

На дистанцию в парном забеге вышли 30 пар. Сначала стартовали девушки. Их задачей было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добежать до своих парней и передать им эстафету. Победителей определяли на финише.

«Занятия спортом заряжают энергией, здоровьем и позитивом. И почему бы в День всех влюбленных не разделить эти ощущения с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кой? Лучший способ это сделать – заняться парными тренировками,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узнать партнера с новой стороны и найти новое общее увлечение», —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бедителем в соревновании стали Инна Галкина и Дмитрий Трубин.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расположились Елизавета Лопаник и Артём Колленко. Тройку призеров замкнули Эльмира Мавланова и Ярослав Мещеряков. Лучшим бегунам вручили кубки, медали и ценные призы.

тройке в тройке в тройке в тройке ски трек' катки в 1,500명 참가

2월 13일, 제39회 전국 대중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가 트로이츠코예에서 열린 가운데 이 종목의 애호가들 1,500여 명이 참가했다. 경기 최연소 참가자는 오는 5월에 2세가 되는 남아이고, 최고령 참가자는 올해 79세가 되었다.

예년과 같이 경기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성되었다. 대회 개막식에서 아니와 시장 아르쎘 라자레브와 사할린 스포츠부 장관 세르게이 부렌코브가 참가자들에게 환영사를 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공동 출발점에서 스키 코스로 떠났다. 메달 따기 첫 경기에 남녀 유치원생들이 200m코스에서 참가했고

2012년-2014년생의 남아들의 500m 코스에서 우승을 위한 경쟁이 눈길을 끌었다. 500m 코스에서 마지막 참가자가 결승선에 오자마자 10세 이상의 참가자들이 2km 코스에서 출발했다. 상급생들은 5km에서 경쟁을 했고 마지막 10km코스에서 가장 노련한 스키어들이 경주하면서 스키 축제에 마무리되었다.

스키 경주 우승은 남성 중에서 야코브 리마노브와 여성 중에서는 엘리자베타 푸네펬코와가 차지했다. 이날 '러시아의 스키 트랙' 경기는 주내 여러 지역에서 개최된 가운데 돌린스크, 쿠릴스크, 코르사코브, 뽀로나이스크, 흠스크, 유즈노쿠릴스크 등 지역의 주민들이 참가했다.

"Лыжня России" собрала в Троицком 1,5 тысячи участников

13 февраля в Троицком прошла 39-я открытая Всероссийская массовая лыжная гонка.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яли более 1500 поклонников этого вида спорта. Самому юному участнику в мае исполнится два годика. Самый возрастной любитель лыжных гонок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тит 79-й день рождения.

Как и в прошлые годы соревнования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открытии соревнований спортсменам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мэр Анивы Артем Лазарев и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Все участники соревнований уходили на дистанцию с общего старта. Первыми в борьбу за медали вступили мальчишки и девочки детсадовского возраста. Им предстояло преодолеть дистанцию 200 метров.

(3면에 계속)

올해 350명이 한국 영주귀국 가능

귀국 신청은 올 6월 30일 마감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설명회 온라인으로 진행

(1면의 계속)

특별법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의 내용과 사후일정에 대한 사할린동포 여러분의 관심이 무척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법 제정 이후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이 기존 사업에 대해 달라진 사항, 대상과 지원내용을 여러분께 안내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한일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1992년 이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은 지속, 실시되어왔지만, 법적 근거는 올해 처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 시행을 계기로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되어 기쁩니다. 기존의 영주귀국 사업은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장애를 지닌 자녀까지만 대상범위에 해당되어 사할린동포분들께서 아쉬운 부분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법 제정을 통해 동포분들의 기대를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드리고자,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직계귀속 한 분과 그 배우자까지로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이주하시어, 광복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사할린에서 각종 고초와 아픔을 견뎌오신 여러분들께서 편안히 귀국하시고, 국내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여생을 보내시는 데 이 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동포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와 요청을 귀기울여 듣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자세하게 영주귀국 및 정착 사업의 내용과 추진 근거, 그리고 지원 대상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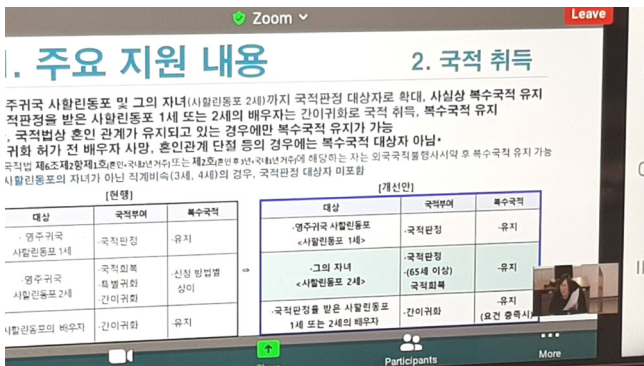
이 사업은 지난해 5월에 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원 대상 범위 확대도 달성했다. 지원 대상은 사할린동포(1945년 8월 15일 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와 배우자 그 동반가족(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다. 직계비속 같은 경우 사할린동포의 8촌 이내의 직계비속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사할린동포가 동의한 직계비속 1명의 신청을 접수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에 미해당한다고 밝혀졌다. 질의응답 들어가서는 여러 지역 사할린 동포들이 사망한 사할린 동포의 직계비속 영주귀국 대상자로 왜 안 되느냐고 여러번 물었지만 현재 법으로는 귀국 대상으로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다.

한국측에서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이후 외교부 장관이 지원 여부 결정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에 대하여 및 정착 지원 실시 예정이라고 하였다.

2021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가능 대상 인원으 총 350명이다.

국적 취득 지원에 대해서는 법무부 대표가 소개했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45.8.15.까지 출생) 및 그의 자녀(사할린동포 2세)까지 국적 판정 대상자로 확대하고(사실상복수국적 유지, 국적판정자의 배우자는 간이귀화가 가능하다. 사실 이들 모두가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동반가족 중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사할린동포 3세, 4세등)의 경우, 별도 국적 범상 요건 충족을 통해 국적 취득 가능(국적 판정대상자 미포함)하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등에 대한 국적판정지침 제정(내부지침)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 지원에 관하여 전국 국민 임대주택 단지 중 주거 여건이 양호한 임대주택에 미입주된 공가를 확보하여 영주귀국 대상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영주귀국 대상자 및 입주 희망 지역 확정(을 9-10월 예상) 시 해당 지역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중단하고 공가를 확보할 예정이다.

사할린동포의 원활한 정착 및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해 가능한 기존 사할린동포 입주 및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현재 주요 사할린동포 입주지역 공가 현황 (변동가능)은 인천시 논현 5단지 인근에는 공가 314호, 안산시 고항마을 인근에는 공가 125호다.

임대주택 배정은 보건복지부 임대보증금 지원 기준에 따라 2인 1세대(17,700천원/세대 지원)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은 보건복지부 확보 예산(총 175 세대, 약 31억원)으로 총당할 예정이며, 임대료(약 22만원, 수도권 전용 39m²)는 주거 급여 수급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원 가능하다.

귀국 및 정착 지원 관련.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1인당 75,000원 지원할 것으로,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 항공료(실비)와 집기비품(1인당 1,400,000원) 지원한다.

복지 급여 지원은 법률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복지

주, 아무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문화 예술 분야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경연 참가 학생들은 '정물의 세계', '자기 고향에서', '뜰에서 만나보자!' 등 3개 부문에 작품을 출품했다. 첫째 부문에서는 예술성이 높은 정물화를 표현, 둘째 부문에서는 도시, 마을, 지역의 근로자들을 반영, 셋째 부문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의 삶에서 받은 감동을 보여주었다. 이들 청소년 화가들의 전시회는 4월4일까지 열린다고 체호브 책 박물관 측이 전한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Новые имена"

Мир обычных предметов, истории жизни во дворах и красота природы – в музее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12 февраля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Новые имена". Юные таланты от 10 до 19 лет представили на суд сахалинцев около 130 стилистически разнообразных, яр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в техниках живописи, графики и декоративного искусства.

"Новые имена" реализуются в рамках одноимённого XII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конкурса детск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Он проходит раз в три года, и за 25 лет работы расширил географию участников и приобрел статус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В этом году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ебята из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феры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Магаданской,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ей и Владивостока.

В конкурсе ребята могли участвовать в трёх номинациях: "Тихий мир предметов", "На своей земле", "Встретимся во дворе!". В первой художники представили высоко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натюрморты, во второй отразили жизнь городов, посёлков и тружеников регионов, в третьей показали впечатления, полученные

급여를 지원한다.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2세)의 경우 입국 후 국적취득(귀화)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서 해당 급여를 지급받으나, 귀화에 필요한 한국 거주 요건을 고려, 최대 3년 범위 내 보장(국적 취득 시 사할린동포와 동일 특례 적용)한다.

영주귀국 신청 접수는 202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안)를 7월에 선정하고 대상자 결정 및 본인 통보는 9월에 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 내 재외공관에 접수된 신청서는 6월30일 이후 대한적십자사로 동시에 제출되므로, 접수 순서는 선정결과와 전혀 무관함.)

2021년 12월 중 영주귀국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주귀국 이후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운영(21.12.-22.2.)하고 건강검진, 정착 지원, 국적판정 신청 및 국적 취득을 도울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 소개 이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관계부처 대표들은 거의 1시간 반 동안 사할린동포들의 많은 질문에 답변했다. 특히 국적 관련 질문, 대상자 관련 질문이 많았다. 아직 불확실한 것도 있었다.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신청 및제출서류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은 다음호 게재).

(배순신 기자)

아래에 영주귀국 관련 대표적 문의사항과 답변 일부 게재한다.

문. 이미 영주귀국사업을 통해 귀국하였다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신 사할린동포의 경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재신청이 가능한지?

답. 이미 영주귀국하셨다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신 사할린동포의 경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신규 신청자격 불인정.

문. 사할린동포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

답. 러시아 주민신분등록청 발급 △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외에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국적확인서 또는 △대한민국 (구)호적 등 사할린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 당해 연도 영주귀국 가능 인원에 비해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 선발 우선 순위 기준은?

답. 고령순 등 기준에 의거, 대한적십자사 인선위원회 결정 사항.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Захватывающей получилась борьба за верхнюю ступеньку пьедестала почета на дистанции 500 метров среди мальчиков 2012-2014 года рождения.

Как только финишировал последний участник на дистанции 500 метров, на старт дистанции 2 километра вышли школьники десяти лет и старше.

Старшие школьники соперничали на дистанции 5 километров. Завершали праздник спорта самые опытные лыжники на дистанции 10 километров. Гонку среди мужчин выиграл Яков Лиманов, среди женщин – Елизавета Пуненкова.

В этот день «Лыжня России» прошла во многи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жители Долинского, Курильског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и др. районов.

유즈노사할린스크, '새로운 이름들' 전시회 개최

2월12일 '사할린 섬들' 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일반 사물의 세계, 자연의 아름다움과 주변 생활 속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이름들> 전시회가 열렸다. 10세 -19세의 청소년들이 장식 미술 및 그래픽, 회화 기술이 돋보이는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들 130여 점을 전시해 사할린 주민들의 평가를 기다린다.

<새로운 이름들>전시회는 동명의 제 12회 사할린주 국제 아동 미술창작 축제·경연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축제는 3년에 1회 열리며 지금까지 25년간 이 활동은 참가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 간 위상을 얻었다. 올해는 하바롭스크 변경, 마가단

детьми от окружающей жизни.

Посетить выставку молодых художников можно до 4 апрел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사할린 비상호출 서비스 전화번호 변경

사할린주에 비상호출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2월15일부터 비상호출 시스템에서 전화할 때 통상 번호에서 하나 더 번호를 추가해야 한다. 화재 신고는 01 대신 101을, 경찰서는 102, 구급차는 103, 주유 서비스는 104를 눌러야 한다. 한편 긴급 비상호출은 전과 같이 112로 작동한다. 이러한 번호 변경은 러시아 연방 대중소통 및 통신부가

'주식회사 로스텔레콤의 번호 설정 및 러시아 시스템 활동을 위한 확정과 도입에 대하여'라는 법령에 근거해 변경이 되었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изменились номера вызова экстренных служб для стационарных телефон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зменились телефонные номера экстренных служб. С 15 февраля со стационарных телефонов к привычным номерам при наборе необходимо добавлять единицу.

Так, при вызове пожарных необходимо вместо 01 набрать 101, полиции – 102, скорой помощи – 103, газовой службы – 104. Вместе с тем в прежнем режиме работает единый номер для вызова экстренных служб 112.

Изменения введены на основании приказ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вязи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Ф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и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российской системы и плана нумерации ПАО "Ростелеко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ПСО.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вязи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Ушедший 2020 год для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ложный и значимый.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этот год юбилейный – 30 сентября исполнилось ровно 30 лет со дня важн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бытия –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и Южная Корея заключи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преддверии юбилея еще в 2018 году обе страны подписали Меморандум о проведении Года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в 2020 году, который и был приурочен к 30-лети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днако мировая пандемия внесла в установленные планы существенные коррективы. В условия мирового кризиса, закрытия границ и установления карантина оказались втянуты и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27 марта было прервано воздушное сообщение, которое было возобновлено только 1 октября, и то не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 один рейс в неделю по маршруту Москва–Сеул. Авиарейсы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бывшие ранее регулярными, до сих пор не возобновились. Был приостановлен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и существенно сократились туристические и деловые поездки.

Как в недавнем интервью признается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Москве Ли Сок Пэ за 30 лет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епрерывно развивались – в России работает более 150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растет объем торговли. Помимо этого, российские 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узы заключают соглашения об обмене и науч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Не прекратилась эта положительная динамика в 2020 году.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например, заключил новое соглашение с Суворов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которое пополнило ряд его уже имеющихся договоров с Университетом Донсо, Пусан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Университетом туризма Чеджу, Университетом Донгук, Университетом Халл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нчон и Университетом Вон Гван.

Несмотря на ограничения каранти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не прекратились международные конференции – в этом случае помогли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В августе 2020 г.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прошла уже ставшая регулярной конференция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Халлим, посвященная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евразийском континенте.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были затронуты важные вопрос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С докладами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выступили трое ученых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Ширится и деятельность Южной Кореи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актов в России. В конце 2020 г. начальни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ринес в дар Сахалинскому областному краеведческому музею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аудио-гидов, на которые записаны экскурсии по музею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Это оборудование существенно облегчит корейским туристам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ь знания об истории, природе и культур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сколько ранее, также при поддерж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был сделан перевод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монографии Дин Юли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я в советское и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В декабре книга была издана в Южной Корее в издательстве Сонин.

Надеемся,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сложное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и закрыт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границ, контакты, проходящие на уровне област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не прекратятся, а и далее будут вносить важный вклад в укрепление и расшир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Юлия Дин,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доцент СахГУ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В этом году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может выехать 350 человек

1 января 2021 г. вступил в силу Спец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16 февраля в 16 час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времени состоялся брифинг по «Проекту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семей в 2021 году».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ом ста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рифинг проходил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на него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имеющих отношение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уже уехавшие на ПМЖ в Р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1-го поколения – 22 чел,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Приморья, Хабаровска, Москвы, Ростова-на-Дону, Казахстана – всего 14 чел.).

Сахалин на брифинге представил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а разрозн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ак Ген Чун, председатель молодеж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Ли Сергей,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ас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Ким Вечери, советник РООСК О Тин Ха и гл.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иктория Бя.

На брифинг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основные пункты проекта: получатели поддержки,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аренда жилья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виды поддержки, сроки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на ПМЖ и т.д.

Согласно Спецзакону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создана юридическая база для переезда на ПМЖ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екта может быть представитель 1-го поколения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ьи, т.е. его супруга(супруг), а также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с супругой(ом).

Во время брифинга был сделан акцент, что члены семей 'умерших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е включены в список лиц,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о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Вопрос о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2-го поколения, родители которых уже умерли, поднимался участниками брифинга несколько раз.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неизменно давала ответ, что в рамках действующего Спец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они не могут стать получателями поддержки на программу переселения в РК.

Что касается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то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рожденные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 и их дети(2-ое поколение), переселившиеся на ПМЖ, являются гражданами РК по определению(-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гражданства), а для супругов граждан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предусмотрено упрощенная система натурализации.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все они сохраняют второе гражданство.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сообщила, что в планах на этот год принять на ПМЖ 350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Желаящие выехать на ПМЖ должны буду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я до 30 июн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их прием начнется в март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сентябре-октябре уже будет составлен окончательный список людей, кто попал в программу поддержки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а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К тому времени также будет подобрано жилье.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идя навстречу пожеланиям сахалинск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старается найти его поблизости от мест компак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репатриантов. Уже, в частности, найдено жилье (125 свободных квартир) в г. Ансан вблизи квартала Кохян мауль и в г.Инчхон квартал Нонхен (314 свободных квартир), но это не окончательные цифры.

Лица, которые попали в список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на ПМЖ и начальное устройство, уже в декабре 2021 г. должны будут выехать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Им полагается оплата проезда до нового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и различного рода поддержка на перво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Для них будет специально организованы базы помощи по адаптации к жизни в РК и обустройству после переселения (медосмотр, помощь в обустройстве,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на гражданство и т.д.).

Кстати, порядок первоочередности выезда в РК и заселения не зависит от даты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и определяется Красным Крестом РК.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также просит, в случае, если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умер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ьи подали заявление, необходимо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Заключение о смерти с указанной датой смерти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Заключение о смерт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консуль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или Красный Крест РК, куда подавался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Виктория Бя

Hyundai назвал причину отказа о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в стране небоскреба

Компания Hyundai отказалась от план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105-этажного небоскреба в Сеуле для своей новой штаб-квартиры.

Вместо этого автопроизводитель надеется построить три здания меньших размеров не выше 50 этажей. Он планирует обратиться за одобрением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еула.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одобрения от властей города в ноябре 2019 год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ового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в стране офисного здания начались переговоры Hyundai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ороны, потребовавшего новый радар, поскольку башня Hyundai встает на его пути. В то время автопроизводитель согласился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и нача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строив здание наполовину.

Но позже автопроизводитель посчитал, что 50-этажные здания не встанут на пути действующих военных радаров. Соседнее здание Всемирного торгового центра имеет высоту в 54 этажа.

«Главная причина снижения этажности – экономия сотен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на закупку военного радара», — сказал промышленный источник.

Hyundai купила земельный участок для строи-

тельства небоскреба у компании KERCO в 2014 году за 10,55 триллиона вон. Тот год оказался успешным для Hyundai и аффилированной компании Kia, которые прода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8 миллионов автомобилей. Но продажи упали до 7,88 миллиона автомобилей в 2016 году и до 7,25 миллиона в 2017 году в связи бойкотом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родукции Кита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х совокупные продажи сократились до 6,35 миллиона единиц ввиду эпи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что привело к растущим обвинениям компании в бессмысленной трате денег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боскреба.

Изменение планов сократит затраты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 3,7 триллиона вон до примерно 1,5 триллиона вон. «Сейчас Hyundai необходимо экономи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средств для инвестирования в будущий бизнес, такой как выпуск электромобилей», — сказал источник. — «Сокращение затрат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высит прибыльность и станет легче привлечь инвестиции для новых зданий».

ИА РУСКОР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Лидер КНДР поставил перед страной конкрет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задачи

11 февраля в Пхеньяне завершился Второй пленум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ТПК) восьмого созыва, на котором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ТПК Ким Чен Ын поставил перед страной конкрет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задачи. Как сообщило 12 февраля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он обвинил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в неумении подготовить работоспособные план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сектор также установил невыполнимые цели производства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несмотря на трудности с обеспечением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техникой и материалами.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л, что производство на угольных шахтах и других объектах остановлено из-за нехватки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Он приказал улучшить ситуацию с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и реализовать крупные строительные проекты. Ким Чен Ын также определил направл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ообщает ЦТАК, не приводя подробностей.

Президент РК вручил новым министрам удостоверения о назначении на должности

Альянс РК и США имеет решающее значение для мирного процесс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ручая новому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Чон Ый Ёну удостоверение о назначении на должность. Он отметил, что укрепление альянса – это задача, которая может быть решена поэтапно, благодаря тесном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но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США. Президент вручил удостоверения о назначении на должности ещё двум новым министрам - министру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Хван Хи и министру малого, среднего и венчурного бизнеса Кwon Чхиль Сыну.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ручил Хван Хи принять меры по искоренению таких проблем как насилие и сексуальные домогательства, имеющие место в мире спорта.

Вакцинация граждан РК старше 65 лет отложена

Вакцинация граждан РК против COVID-19 препаратом AstraZeneca, разработанным британско-шведской компанией и Оксфорд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начнётся 26 февраля, как и планировалось ранее. Она коснётся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сотрудников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 пожилых людей, проживающих в домах престарелых, в возрасте до 65 лет. Их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составляет 272 тыс. человек. К концу март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720 тыс. человек будут вакцинированы препаратами производства AstraZeneca и Pfizer.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Корей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и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одобрило вакцину AstraZeneca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производитель представи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данные о третьем этапе клинических испытаний. Вакцинация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65 лет и старше отложена, поскольку недостаточно данных об эффективности препарата для это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ы. Решение будет принято в конце марта.

С 1 по 10 феврал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экспорт вырос на 69%

По данным Тамож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К, в период с 1 по 10 февраля экспортные поставки составили 18 млрд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69,1%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Зарубежные поставки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выросли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на 57,9%, автомобилей – на 102,4%,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 на 37,5%,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устройств – на 88%. Экспорт в Китай увеличился на 65,7%, а в США – на 91,4%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Импорт составил в первой декаде февраля 20 млрд 400 млн долларов,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71,9%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торговый дефицит составил 2 млрд 460 млн долларов.

Фильм «Минари» борется за кинопремию «Выбор критиков» в десяти номинациях

8 февраля в США объявлены номинанты на ежегодную престижную кинопремию «Выбор критиков» (Critics' Choice Movie Awards), которая будет вручаться в этом году в 26-й раз. Церемония состоится 7 марта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Все лауреаты смогут выйти в эфир из того места, где они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в день проведения церемонии. Фильм «Минар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Ли Исаака Чона поборется за премию в десяти номинациях, в том числе, «Лучший фильм», «Лучший режиссёр», «Лучший актёр», «Лучшая актриса второго плана», «Лучший молодой актёр или молодая актриса», «Лучший актёрский ансамбль», «Лучший иностранный фильм», «Лучший сценарий». Сюжет фильма «Минари» основан на истории жизни самого режиссёра, родители которого в 80-х годах прошлого века переехали в штат Арканзас и начали заниматься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Минари» -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по числу номинаций.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фильм Дэвида Финчера «Манк», который собрал 12 номинаций.

(RKI)

"Спутник V" предложи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сближения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Часть производимых в Южной Корее российских препаратов "Спутник V" можно был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качестве помощи от Сеула Пхеньяну при посредничестве РФ. Да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зволило бы начать новый вид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а также придало бы новый импульс межкорейскому сближению. С таким заявлением выступил губернатор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 Чхве Мун Сун в беседе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Если мы направим производимую у нас вакцину "Спутник V"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то Россия могла бы выступить посредником в данном процессе и это позволило бы улучшить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Это стало бы хорошим стартом для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заявил Чхве Мун Сун в интервьюинформгентству Sputnik. Губернатор признал, чт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Кореи нет никаких контактов, а потому помощь в налаживании диалога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и "была бы очень кстати".

Отметим, что Россия достигла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с одн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ей о производстве на

ее заводах в городе Чхунхон,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 российской вакцины "Спутник V". В год планируется выпустить около 150 млн доз препаратов.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сначала игнорировали российскую вакцину, но недавно стали проявлять к ней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заявив, что не исключают возможности закупки "Спутника V", хотя сами уже подписали договоры с европейскими и американ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на импорт вакцины против коронавируса.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 Чхве Мун Сун пользует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у себя в регионе и широко известен как сторонник развития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с Россией и КНДР. Именно Чхве был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инициаторов создания в Корее групп местных болельщиков, которые во время Олимпиады-2018 в Пхенчхане с трибун поддерживали российских атлетов, вынужденных выступать без флага и символики РФ. Губернатор также лично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являлся на трибунах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и российскими флагам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Бывшая сексуальная рабыня просит передать проблему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уд

Бывшая жертва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Ли Ён Су потребовал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ередать вопрос о сексуальном рабстве со стороны Японии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уд. Выступая 16 феврал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она осудила действия Токио, который отрицает преступления прошлого, а также необоснованные заявления профессора Гарвар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жона Марка Рэмсиера. 93-летняя Ли Ён Су, одна из 15 доживших до наших дне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отметила, что Япония не выполняет решение Сеульского суда о компенсациях потерпевшим. Меж-

дународный суд в Гааге имеет полномочия в рамках ООН для разрешения споров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Ли Ён Су выразила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народы РК и Японии окончательно решат все проблемы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суде и будут жить в мире друг с другом. 8 января Центральный окружной суд Сеула обязал Японию выплатить финансовую компенсацию в размере 100 млн вон (91.300 долларов) каждой из 12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период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которые подали иск в августе 2013 года. Япония отрицает данное решение, считая его нарушени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KBS World

Вице-председатель Samsung Electronics предупреждён о пятилетнем ограничении занятости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15 февра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К предупредило вице-председателя Samsung Electronics Ли Чжэ Ёна о том, что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его тюремного срока вступит в силу пятилетнее ограничение занятости. 18 января Ли Чжэ Ён был приговорён к 2,5 годам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за причастность к делу о коррупции с участием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ак Кын Хе и её подруги Чхве Сун Силь. С учётом времени, ранее проведённого под стражей, Ли Чжэ Ён должен быть освобождён в июле 2022 года, если не будет помилован. 25 января он заявил, что не будет обжаловать приговор. Закон РК об определённых вида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е-

ступлени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ятилетний запрет после отбывания наказания на работу в той же компании обвинённого в преступлении, которое связано с незаконным присвоением имуществ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Ли Чжэ Ён сможет вернуться на прежнюю работу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2027 года. Однако у него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ать прошение в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отдель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на работу. В этом случае существует вероятность того, что ограничение будет снято по решению комитета по делам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еступлений, которое должно быть утверждено министром юстиции.

KBS World

КНДР пыталась украсть технологии вакцин и лечения от COVID-19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ыталась взломать компьютерные систем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лекарств,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информацию, связанную с вакцинами и лечением от COVID-19.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ы разведки, зачитанном 16 февраля на закрытом заседании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ведки. Секретари комитета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Ким Бён Ги и от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Ха Тхэ Гён сказали, что с начала года в отношении РК совершены 1 млн 580 тыс. кибератак. Их среднесу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увеличилось на 32%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Источником большинства из них является КНДР.

KBS World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На Сахалине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воинов-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ов, погибших за пределами Отечества

У памятника «Скорбяща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5 февраля собрались ветераны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родственники погибших воинов, активисты молодежных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объединен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15 февраля отмечается День памяти о россиянах, исполнявших служебный долг за пределами Родины. Дата выбрана неслучайно: в этот день в 1989 году последняя колонна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покинула Афганистан.

— Десятки сахалинцев сложили свои головы на чужой земле. Сегодня мы собрались почтить память тех, кто отдал самое дорогое — свои жизни. Мы собрались также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етеран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Своей активной жизненной позицией и любовью к Родине вы вносите весомый вклад в дело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 выступил от имени главы региона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слав Епифанов.

— Русские солдаты выполняли свой воинский долг более чем в 20 странах мира. Мы чтим память тех, кто не вернулся домой. Склоняем головы перед матерями, отцами, женами, сыновьями и дочерьями, братьями и сестрами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командира 68-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полковник Дмитрий Рожков.

На митинге выступ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етера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духовенства, а также родственники участник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 Нашей семье повезло — папа вернулся живым и здоровым из Афганистана, — рассказала Марина Другова, дочь воина-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а Геннадия Другова. — Я сама служила тогда в части. Помню ребят совсем молодых — моих ровесников, — но у них было уже несколько боевых вылетов на счету.

После минуты молчания участники митинга возложили к памятнику траурные гирлянды, венки и цветы.

Сегодня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живают 1837 ветеран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помогают им решать различные, в том числе жилищные вопросы. С 2015 года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ыплаты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получил 181 ветеран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эти цели было выделено почти 45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этом году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ветеран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зн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30,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ыжная России» собрала около 2,5 тысяч любителей спорта

Состязания прошли в 17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Самая массовая гонка по традиции состоялась в селе Троицком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Текст приветственной телеграммы от имени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ахалинским любителям спорта зачит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Ющук.

—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Сердечно приветствую вас на старте Всероссийской массовой лыжной гонки «Лыжная России». Отрадно, что традиция проведения этих замечательных и очень популяр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не прерывается уже много лет. Из года в год в ней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десятки тысяч людей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по всей стране. Этот лыжный праздник объединяет тех, кто искренне любит лыжный спорт,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занимаетс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подаёт пример другим своей приверженностью здоровому и активному образу жизни. Уверен, что нынешняя Лыжня России запомнится добродетельной, тёплой атмосферой и конечно же хорошими спортивными результатами. Желаю вам всего самого наилучшего, — озвучил Владимир Ющук.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шли в четырё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Спортсмены преодолевали дистанции 200, 500, 2000, 5000 или 10000 метров. Самым маленьким любителям лыж едва исполнилось 5 лет. А среди взрослых участников было много гостей острова.

— Я приехала из Хабаровска, отдохнуть, покататься на лыжах, а заодно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эт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Бежала пять километров. Трасса очень хорошая. Особенно в сравнении с Хабаровском — у нас снега нет уже три года. А здесь и погода отличная, и лыжи прекрасно скользят, и люди замечательные. Испытываю только хорошие эмоции,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Елена Иванова.

Призёрам лыжной гонки вручили медали и грамоты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России, а победителям достались кубки. Награды получили десятки спортсменов. К примеру, на самой длинной дистанции «золото» взяли Яков Леманов и Елизавета Пуненков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17-летний Максим Косарев стал лучшим на дистанции 5 километров среди юношей.

— Трасса равнинная, здесь бежать намного легче, чем, скажем, по лыжне нашего биатло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Я занимаюсь лыжными гонками уже восемь лет и помимо официаль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всегда стараюсь участвовать в массовых стартах. Они дают мне эмоции, праздн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а также помогают восстановиться физически и морально, — рассказал южносахалинец Максим Косарев.

К сегодняшним соревнованиям подключились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Активисты участвовали в организации мероприятия, регистрировали спортсменов, а также помогали в судействе. Кроме того, около 50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вышли на лыжню и покорили 10-километровую дистанцию.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договариваются о поставках вакцины «Спутник Лайт»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может стать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регионов, куда поступит новый препарат. Для выработки иммунитета при его использовании потребуется одна прививка, в отличие от аналогичных средств.

Новую форму хорошо зарекомендовавшей себя вакцины «Спутник V» готовит к выпуску Национальн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эпидемиологии и микробиологии имени Гамалеи.

— Скорее всего, первые прививки вакциной «Спутник Лайт» получат медики, педагоги, социальные работники, как было и с начала вакцинации. Есть категории пациентов, у которых возникают сложности в связи с двухэтапным вакцинированием. Таким пациентам тоже будут предлагать однократную прививку,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Воспитатель детского сада Ирина Николаева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прошла вакцинацию.

— Опасения были, не скрою. Но желание жить, сохранить здоровье перевешивало. Некоторые знакомые очень тяжело болели. А я работаю с людьми. Мне нельзя рисковать. С момента прививки прошло уж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икаких симптомов, ничем не заболела. Веду обычную жизнь, — поделилась сахалинк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вились уже свыше 20 тысяч человек. Из них более 5 тысяч — прошли оба этапа. Единственное ограничение для прививки, кроме противопоказаний по заболеваниям, — возраст до 18 лет. Записаться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1-300 (добавочный 10),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а также при личном обращении в медучреждение.

Интенсивная иммунизация позволяет возобновить привычную работу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Сегодня в прежнем режиме работает кожно-венерологический диспансер, сократ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ковидных коек в Корсаковской и Анивской ЦРБ.

В шести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реализуют новую партию свеж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Более трех тонн охлажденной камбалы, минтая и трески будут продава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рсакове, Аниве, Холмске, Невельске и Долинске. Цены на камбалу — от 50 до 80 рублей за килограмм, минтай — от 55 до 90 рублей, треску — от 69 до 100 рублей.

—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25 января мы запустили новую практик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аиболее нуждающихся категорий — пенсионеров и ветеранов — освобождают от работы. Им сообщают о том, в каких местах и в какое время будут продавать свежую рыбу по низким ценам. Людям, следящим за нашими соцсетями и сайтом — сообщаем информацию в таком формате. Пока в проекте 6 районов, в дальнейшем будем включать и другие. Чтобы люди могли покупать доступную и качеств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Иван Радченко.

Охлажденные морепродукты с борта судна вечером отгружают в порту Невельска, передают операторам и уже к утру развозят в места прямых продаж. Сахалинцам оперативно сообщают о времени и мест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дукции разными способами, включая сообщения в интернете и телефонные звонки.

Поставки свежей рыбы по минимальным ценам стали доступны благодаря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достигнутой между областным агентством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и рыбодобывающим предприятием ООО «Прибой-Восток», а также работой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с торговыми компаниями-операторам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езона ассортимент рыбы будет менятьс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ет работу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коррупции в органах власти областн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ровня

Управление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коррупционных и иных правонаруш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овместно с прокуратур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ледствен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След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РФ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Управлением 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ло и провело совместный семинар-совещание по акту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профилактики коррупции.

В работе семинар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00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ветственных за профилактику коррупционных и иных правонарушений.

В рамках семинара освещены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профилактики коррупции в органах власти и новеллы декларационной кампании 2021 года.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совещания были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ны о норматив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работы комиссий по соблюдению требований к служебному поведению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конфликта интересов и результатах работы органов прокуратуры в рамках проводимого надзора. В рамках мер по профи-

лактике совершаемых коррупционных правонарушений и преступлен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до участников семинара доведена информация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след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по выявлению и расследованию уголовных дел коррупцион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в 2020 году.

В ходе обсужд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управления и прокуратуры ответили на имевшиеся вопросы участников совещания.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взять в приемные семьи одиноких пожилых людей и инвалидов

Для таких сем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усмотрена ежемесячная выплата.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её размер составляет от 15 150 до 20 200 рублей.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одновременно заботиться о двух подопечных. Материальную помощь предоставляют на каждого из них. Данная поддержка действует с 2015 года и включена в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Демография».

Сейчас в области создано 58 приемных семей.

— Многие люди, которым в силу возраста и здоровья требуется постоянный уход, не хотят менять свой жизненный уклад. Приемная семья как раз дает пожилому человеку возможность, оставаясь в домашней обстановке, получать не только повседневную бытовую помощь, но и радость общения, душевную теплоту ставших ему близкими людей, — отметила Виктория Автухов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развития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стоянную помощь в бытовых вопросах пожилой супружеской паре начала оказывать Светлана Степанова из Корсакова.

— На самом деле, я и раньше им помогала. Мы давно знакомы. Однако теперь как родные, живем одной семьей. Я рада, что так все сложилось, у нас полное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и доверие, — поделилась островитянка.

Создать приемную семью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могут для одиноких граждан, супружеских пар пожилого возраста (женщин старше 55, мужчин старше 60 лет), а также инвалидов, в том числе с детства. Предельный возраст ухаживающих — 70 лет.

Для создания приемной семьи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щаться в органы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Подавших заявление об участии в программе тщательно проверяют. Они не могут быть близки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а также не должны иметь судимость, страдать психическими, а также социально опасн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Их жилье должно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техническим и санитарным нормам. При взаимном согласии сторон комиссией принимается ре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приемной семь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остоянный контроль за соблюдением условий договор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овал проект смарт-ФАП

Сельские жители в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ах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телемедицин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не выезжая в районные центры. На этой неделе состоялись первые дистанционные сеансы между жителями села Восточка и врачам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4.

Светлана Шамаева — в прошлом сама фельдшер — сегодня пришла в медпункт в качестве пациента. Жительница Восточки признается, что раньше о таком уровне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 селе не приходилось даже мечтать.

— Развитие медицины далеко шагнуло. Удивительно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дистанционно. Как будто побывала на настоящем приеме, врач мне все объяснил, дал рекомендации, — поделилась Светлана Шамаева.

Восточка стала первым населенным пунктом, в котором стартовал проект смарт-ФАП. Для этого имеется необходим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беспечена бесперебойная работа Интернета.

— В селе проживает больше 50 человек старше 65 лет. В этом возрасте часто имеются хрон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пациентам необходимо находиться под чутким медицинским наблюдением. Будем наращивать объемы помощи — планируем проводить телеконсультации с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ой и с дет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ей,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поликлиники № 4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ей Ефимов.

Фельдшер медицинского пункта Елена Лихачева отметила удобство телемедицины как для пациентов, так и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 Мы рады, что проект заработал. Раньше существовали некоторые трудности. Сейчас жители села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рекомендации терапевта, эндокринолога, невролога,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лечение. Технические сбои во время общения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не наблюдалось, — рассказала она.

Записаться на телеконсультацию жители Восточки могут двумя способами — через личный кабинет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или через фельдшера ФАПа, который внесет данные пациента в расписание. В ближайшие месяцы проект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 еще в 11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ах области, в остальных — в 2022 год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Information about 2021 KOREAN HOMELAND EDUCATION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учебные курсы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Национальным институ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Выбирайте программу обучения в Корее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K-HED)!

Спонсор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Организатор |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Набор

Классификация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Очное обучение
Название курса	Курс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поступлению в университет	Курс по пониманию Кореи				Курс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поступлению в университет
	I	Весна	Лето	Осень	Зима	II (Фокус на поступлении в университет/Фокус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ериод обучения	'21. 4. 5. ~ 6. 25.	'21. 5. 3. ~ 6. 11.	'21. 7. 5. ~ 8. 13.	'21. 9. 3. ~ 10. 22.	'21. 11. 8. ~ 12. 17.	'21 9. 7. ~ '22. 1. 27.
Время обучения	120часов	50~62часа	50~62часа	50~62часа	50~62часа	460часов
Период приема заявок	'21. 2. 8. ~ 3. 12.	'21. 2. 8. ~ 3. 12.	'21. 5. 10. ~ 6. 11.	'21. 7. 1. ~ 8. 13.	'21. 9. 13. ~ 10. 15.	'21. 6. 1. ~ 7. 16.
Стоимость обучения	Бесплатно					3,475,000 won <5 месяцев>
						Обучение 1,150,000 Проживание 750,000 Питание 1,575,000
Квалификация для участия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Курс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поступлению в университет (I) ▶ Зарубежные корейцы, желающие поступить в университет в Корею или улучшить свой уровен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урс по пониманию Кореи ▶ Зарубежные корейцы старше 12 лет				
	Очное обучение	Курс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поступлению в университет (II) Зарубежные корейцы, завершившие 12 или более лет формального (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акже признается эквивалент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стране проживания и получившие рекомендацию главы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Группа с фокусом на поступлении в университет: зарубежные корейцы, желающие поступить в университет в Корею *Группа с фокусом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зарубежные корейцы, стремящиеся улучшить свой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Документы для подачи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① Заявление (установленная форма) ② Учебный план (установленная форма) ③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статус зарубежного корейца ④ Согласие на сбор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Очное обучение	① Заявление (установленная форма) ② Учебный план (установленная форма) ③ Аттестат о последнем (предстоящем) окончании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④ Выписка оценок из последнего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⑤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статус зарубежного корейца ⑥ Копия заграничного паспорта ⑦ Подтверждение родства с лицами, внесшими вклад в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аны (дл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лиц) ⑧ Подтверждение заявки на стипендию (дл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лиц) ⑨ Согласие на сбор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Место получения форм и подачи заявок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Получение форм заявлений Сай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https://www.niied.go.kr Сайт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джу https://hansaram.or.kr Подача заявок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джу hansaram@kongju.ac.kr				
	Очное обучен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тране проживания (Посольство /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Корейски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 Жители Японии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через Союз южнокорейцев, живущих в Японии.				
Стоимость обучения	· Он-лайн концерт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Программы обучения в Корею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2021: проводится в феврале (расписание проведения будет объявлено через соцсети). · Рекламный видеоролик о Программе обучения в Корею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 Вводное видео о дистанционном обучении по Программе обучения в Корею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www.youtube.com/user/KNUhansaram					

※ Вышеизложенный процесс может измени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с COVID-19

Привилегии

Привилегии для студентов, окончивших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 01
- Выдача сертификата об окончании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учения при удовлетворении критериев завершения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учения
- 02
- В случае получения сертификата об окончании,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ки на очное обучение по Программе обучения в Корею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года, учащийся получит приоритет при отбор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типендиаты

※Исключая студентов, уже получивш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стипендию

Стипенд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стипендия)

- Объект отбора: зарубежные корейцы, получившие рекомендаци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среди всех заявивших на Программу обучения в Корею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 Критерии отбора: «Стипендиальный комитет» рассматривает и отбирает среди кандидатов, рекомендованны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ми, оценивая их стремление к учебе, потенциал развития, семейны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родство с лицами, внесшими вклад в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аны и др.
 - Содержание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около 70% расходов на обучение по заявленному курсу (1 курс) и авиабилеты туда и обратно
 -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к отбору: около 350 в год
- ※ Потомки лиц, внесших вклад в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аны, при отборе стипендиатов будут 100% обеспечены поддержкой в расходах на обучение и авиабилеты туда и обратно

Контакты для консультации и вопросов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при Националь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Конджу

Адрес | почтовый индекс) 32560 Чхуннам, г. Конджу, Угымтхи-ро 753 (Окрён-дон) Кампус Окрён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джу

Телефон| +82-41-850-6031 (консультация возможна на японском, китайском, англи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Факс | +82-41-850-6039

Эл.почта | hansaram@kongju.ac.kr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при НУК)

Веб-сайт | <http://www.niied.go.kr>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http://www.hansaram.or.kr>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при НУК)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khed_niied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knuhansaram/>
Youtube | <https://www.youtube.com/user/KNUhansaram>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5회 동양 언어 축제 원격으로 진행

지난 12일(금) 음력설을 맞아 동양김나지아 주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교육관리국의 지원으로 제5회 동양 언어 축제가 펼쳐졌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시기에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조직자들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 유즈노사할린스크, 흠스크,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크라스노고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등의 15개 학교와 보충교육센터 학생 160여 명이 참가했다.

이에 축제 참가자들에게 동양김나지아 마리아 굴라코와 교장이 축하 인사를 하고 공식적으로 축제가 개막되었다.

참가자들은 사전 과제를 받고 2월 10일까지 결과물을 제출해야 했다.

2-4학년 초등학생들은 올해의 상징(소)을 만들거나 그리고(창작 과정 사진으로 증명), 시 낭독 경연 참가자(중국어, 한국어, 일어)는 자신이 시를 읊는 영상을 제출해야 했다. 한국어 시 낭독 경연자들은 동요 '눈꽃새(작사 모기운)'를 외워야 했다.

5-11학년생들은 <올해 상징 만들기>창작 경연, <시 낭독>경연 외에도 에세이 쓰기(한국어,중국어,일본어)와 배우고 있는 언어의 나라(한국, 중국, 일



퀴즈 진행을 맡은 동양김나지아 정혜경 한국어 교사와 김 왈레리아 교사.

본)에 대한 온라인 퀴즈경연에 참가할 수 있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시 낭독 부문에서 안도현의 시 중 <우리가 눈발이라면>란 시를 낭송해야 했고, 에세이는 <자식을 사랑할수록 여행을 보내라>란 주제로 써서 모든 결과물은 역시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했다.

온라인 퀴즈 경연은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11명의 우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가 학생들의 실력과 노력을 평가했다. 한국어 능력은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과 사할린국립대 역사·어문·동양학대학 외국어 및 지역학 학과장 인나 코르네예와 한국어 교수가 평가했다.

퀴즈 경연이 끝난 후 온라인 축제 폐막식이 진행되었는데 우선 심사위원들이 동영상으로 참가자들에게 치하하고, 그 다음 축제조직위원장인 텐(정) 엘레나 동양김나지아 교감이 모든 경연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축제가 원격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우수한 수준을 보여주었다고 칭찬했다.

퀴즈 경연에서는 동양김나지아 학생팀이 우승했고, 2위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30학교(루고워예) 팀, 3위는 우글레고르스크 한글 학교 팀이 차지했다.

시 낭송, 에세이 쓰기, 창작경연 등 여러 지역의 다양한 학교(흠스크,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등) 학생들이 수상하게 되어 동양 언어 교육이 사할린 여러 지역에서 잘 보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배순신 기자)

(사진: 동양김나지아 제공)

본지 이예식 기자님의 부인 광정희 씨가 지병으로 인해 2020년 2월 15일 향년 70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음을 부고합니다. 비애에 잠긴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과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예식 기자님께서 슬픔을 잘 이겨내시길 모두가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전 및 현 사원 일동

새고려신문사 이예식 기자님의 부인 광정희 씨가 70세를 일기로 사망하였음과 관련하여 비애에 젖은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주노인회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